# 第6章 外國의 社會改革運動

## 나, 環境과의 鬪爭

이스라엘의 自然環境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여 전국토가 2만 8백50㎢로 우리나라(22만㎢)의 10분의 1도 못된다. 인구는 365만명으로 역시 우리나라의 12분의 1정도이고 요단강의 河谷에 위치한 地溝帶는 世界最底 大地溝帶로 유명하며, 감유역은 습곡이요, 그 나머지 토지는 사막이나 황야로 불모의 땅이다. 더우기 기후는 지역에 따라 변화가 많으며 여름은 무덥고 전조하며 겨울은 온화하고 비가 온다.

산업은 대체로 광공업 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 얼마 전까지의 실정이었고, 농업도 황야와 불모지 때문에 식료품은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러나 畜産物의 수출이 광물 지금은 農産物과 목할만큼 증대되었으며 공업도 다이아몬드 鍊磨工業을 필두로 하여 방직공업, 食料品加工業 化學藥品, 製紙, 光學등과 석유자원이 유망하며 미국, 영국, 카나다 스위스의 석유회사가 유전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건조지대인 네게브(Negev)에서 석유를 파내고 있고, 두 곳에서 천연가스를 퍼내고 있다.

황무지에서 工業國家를 建設한 것도 경이로운 일이지만, 최근 20년이래 발전시킨 농업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덴마아크도 敗戰後 亡國의 위기를 농촌의 개발로 부흥시켰지만, 濕谷과 沙漠과 荒野를 沃土로 변화시킨 이스라엘의 농업의 發展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매우 많다고 본다.

土質이 좋지못한 것에 전조하여 食水마저 10리길을 멀다 않고 가축동이로 날라야 했고, 겨울에 접어들면 雨期가 되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홍수가 나며 비가 퍼붓는다. 農耕地域도 씨앗을 뿌려보았자 가뭄에 견디지 못하며 겨우 싹이 돋았다고 해도 土壤이 沙土여서 뿌리를 박고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國民들은 그러한 沼澤地와 沙土를 땀으로 적시어 농토화하였고 濕澤地를 전조시키고 또 관개시켜서 오늘날에는 세계로부터 脚光을 받는 농업국으로 매년 世界各國에서 農業技術者들의 시찰이 끊이지않고 있다. 그와 같은 전조지역에서 全天候農業을 하고 있으니 말이 한줌의 흙을 자기생명같이 사랑하면서 지한치 개척해 나갔던 그들의 신념은 2千年前부터 예언받아온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반석같이 믿고 실천해온 종교적인 신앙심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다. 사막위에 풍성한 과수원을 이루고 농작물이 풍요하고 이미개척된 沃土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간다고한다. 농업용 관개용수는 지하에 마치 人間體內의 핏줄과도 같이 大小파이프로 수송되고, 스위치 하나로 조작되는 人工降雨를 방불케 하는 撒水와 분수시설은 여름철의 건조기에 닥치는 가뭄을 능히 견내고도 남는다.

여기에 比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環境에 있는가? 이스라엘과 자연적인 환경은 도저히 비교를 할수 없는것이 없다. 문제는 精神的인 信念에 있다. 이 信念은 누가 그저 주는 것도 아니요, 또쉽게 얻어질 수 있는것도 아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한알의 밀알과같이 흙속에 묻히는 犧牲精神으로 묻혀야만할 것이다.

## 다, 不屈의 精神 속에 핀 復興

여기서 이스라엘의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한 토막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의 實情과 그 악조건 속에서 싸우는상황을 엿볼 수 있을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또 배울수 있는 그것은 共同農場인 기브츠의 建設과 協業農場인 모샤브의 건설에 관한 이야기이다.

시온이즘에 의하여 이스라엘에 모인 移民들이 定着하기 위하여농사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個人的인 農業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地域防衛問題와 農耕地不足問題도 고려해야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는 土地가 완전히 황폐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맨 처음 바란 것은 그들이 새로 구입한 땅에 손수 씨 뿌리고 또 自衛力도 갖춘 주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땅을 시온이민협회의 명의로 하고, 이 土地에서는 百手勞動만이 허락되고 있었다.

○…"續" 이스라엘의 自然環境도 주변아…○
○…락국가들에 의해 위협을 받는安保環…○
○…境만큼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험악…○
○…하다. 그러나 전국민들이 정부를 믿…○
○…고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환경을개척…○
○…하여 沃土를 이루고 있다. …○

용인을 사용하거나 랍을 고용하는 일을 불허했다. 어디까지나 모든 일을 自給自足하도록 했다. 개인적인 소득이나 이익 또는 생각지도 않은 전혀 새로운 건설한다고 오직 토지를 되살리고 조국을 위해서 만노동하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것은 어떤 社會的思想에 理念이나 政治的思想이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生活의 必要에 입각한 것이었다.

여기에 劇的實驗의 무대가 幕을 열게 된 것이 1909년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베리아스 아랫쪽에 있는 四千무남(Munam)의 땅을 샀다. 물론 대부분이 濕地나 沼澤地로 된 땅이었다. 移民協會에서는 20名의 男女에게 1년간 지탱할 수 있는 물자와 돈을 주었다. 沼澤地를 메꾸는 일이 그들의 일부이었다.

그들은 곧 판자집 3채를 세웠다. 그 하나는 共同食堂과 會議場所를 겸한 곳이고, 하나는 곡간과 연장을 두는 창고, 나머지는 16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가 기거할 곳이었다. 그러나 이 판자집은 첫 겨울에 바람과 홍수때문에 10여번 쓰러졌다. 그들은 진흙이라 오랜동안 外部와의 접촉이 단절되기도 했다. 마침내 그들은 부근의 아랍촌락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볼 수 없었다. 이듬해 봄이 되자 沼澤地와 濕地를 한치씩 마른땅으로 만들어 갔다. 물은 빨아올리도록 수백 그루의 오스트리아產유카리나무를 심었다. 그들은 손으로 배수도랑을 팠다. 심한 重勞動이었다. 그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지는 시간까지 일을 했다. 5~6명의 대원은 항상 마라리아병으로 신음했다. 또는 독사에 물려 희생되는 예도 있었다. 마라리아병에 걸렸을경우 그 치료는 귀에상처를 내어서 피가 나오게 하는 아랍식의 치료방법이었다. 그들은 한 뜨거운 밖에는 없었다. 그 틈 내내 허리까지 구정물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다. 그 때문에 警備員이 경비원의 보護를 받아야만 했다. 질병과 과로에 지친 開拓者들에게 自衛의 부담이 하나 더 늘어났다. 밖에서 고된 노역으로 기진맥진해진 開拓者들은 또 밤새 경계를 서야 했다. 4面이 모두 적으로 싸여 있기 때문에 警備를 늦출 수 없었다. 그들은 고독과 더불어 위협을 무릅쓰고 기습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겨나갔다. 따라서 그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얼마의 땅이 되자 그들의 피땀의 자취를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당나귀의 힘으로 들의 바위를 끌어내고 숲의 나무를 베어 開拓을 시작한지 2년 태워야 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가장 중요한 時期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무엇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를 몰랐고 알맞과 수확을 분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밭을 갈아야 하고 일직선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몰랐으며, 소젖짜는 方法, 나무심는 方法을 몰랐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부분의 作業은 실패였다.

그러나 땅은 조금씩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開拓者들은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없었는데도 士氣에 가득차 있었고 항상 싱싱하며 生氣가 펄펄했다.

이스라엘 農村을 빛낸 開拓者들은 기브츠(協業農場)도 모샤브(農村)도 建設하였다. 이스라엘 농촌에는 흔히 두 集團農場을 볼 수 있는데, 기브츠는 完全共有로 個人所有를 인정할 수 없는 데서 애로가 있는 점이 있으나 모샤브는 個人所有가 인정되는점 이 기브츠와 다르다. 이는 共同管理는 하지만 共同作業을 시정한 것이다.

모샤브는 구성원 각자의 기금에 의해서 공동농장을 건설하는데 이 를 建設하기 위해서 개척자들은 기브츠建設때와 같은 역경을 수없이 겪었다. 이 아울러 나간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가? 이 아울러 나간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가? 이 아울러 나간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가?